한국일보
우리의 理想은 健全한 新聞

나에 이력서

〈題字·元一漢〉

元 一 漢 ⑫

九味浦해수욕장

아버지 元漢慶박사(1890~1951년)는 괴나리봇짐을 메고 걸어다니던때 한국에와서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던 시대까지 한국에서 살았다.

그가 어렸을때 걸어서 하루 걸리던 곳을 걸어서는 자동차로 1시간이면 갈수 있었고, 또 걸어서 자동차로 하루종일 달려야 했던 곳을만 년엔 비행기로 1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게됐다고 술회한 일이 있다.

내가 어려서 아버지를 따라 全州에서 전도하고있던 잘은 미국남장로회 선교사를 가끔찾아갔는데 자동차로 이틀이나 걸린것으로 기억된다.

자동차의 성능이나 도로사정으로 보아 公州쯤에서 하룻밤을 쉬어야만 했던것같다.

나는 아버지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로 가끔 왕래도 長淵九味浦까지 나들이한 일을 결코 잊지 못한다. 그때는 새벽녘에 출발해도 어둑어둑할때까지 기껏 달려봐야 海州를 지나지 못했다.

몽금포가 멀지 않은 이 구미포는 일찌기 할아버지(元杜尤목사)가 황해도 선교길에 발견, 해수욕장으로 개발한 곳으로 불리고 바람시원하고 경치좋기로 유명하다.

나는 九味浦해수욕장의 일들이지금은 가고싶어도 갈수없기때문인지 몰라도 그경치가 꿈같이 더욱 아련히 떠오른다.

할아버지는 소래(松川)에 세운 교회에 자주 다니면서 이곳에서 가까운 해변의 九味浦가 세계적 景勝地임을 발견하고 선교사들의 휴양지로 개발한 것이다.

白樂濠박사가 지은 「元杜尤博士小傳」에는 『서해안을 전도순회하다가 長淵 九味浦가 피서지로 최적한곳을 알고 매입하여 선교사들의 피서지를 만들었는데 그 景槪가 동양제일이라고 하니 황폐한 어촌에 피서를 찾음도 慧眼이요, 주야로 전도에 노력하면서도 휴양의 필요를 생각한 것도 여간한 계획에서나 온일이 아니다』라고 기록하고있다.

이 九味浦해수욕장까지는 육로보다도 仁川에서 배를 타고간 횟수가 더 많았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자동차를 배에다 싣고 갔다.

아버지에게는자동차를타고다니면서 전는에피소드가더러있다. 아버지는 뉴욕대학졸업후 선교사가 되어 다시 한국에 왔고 어머니는 외국인 학교 교사로 있었다. 가끔 둘이 외출했는데 그때마다 한국어린이들이 이출을 따라 다니며 구경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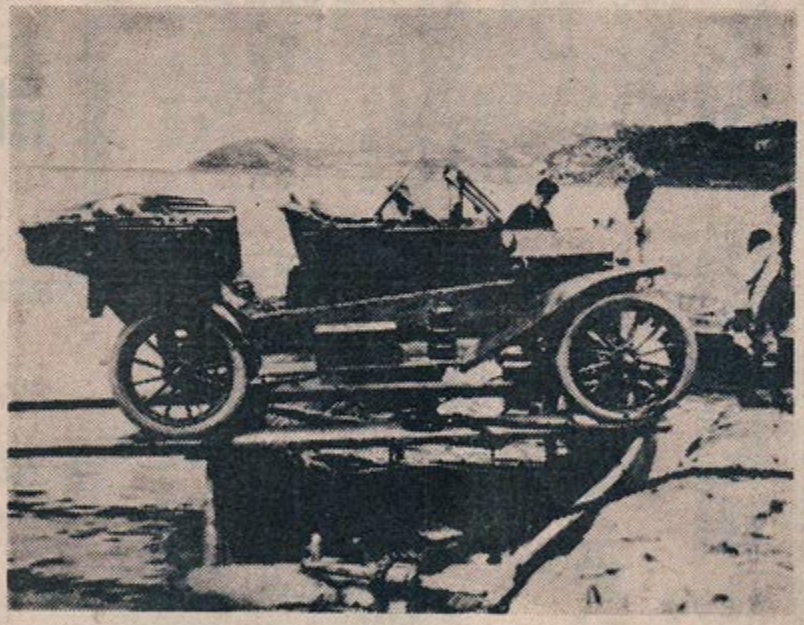
이때 아버지가 『얘들아 길을 비켜라』고 했는지 아니면 무슨 말을 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한다.

한번은 어머니 혼자서 인력거를 타고 외출했다. 역시 아이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길을 막았다.

한국말을 잘하지 못했던 어머니는 그전에 아버지한테 들은대로 『비켜라』하고 소리쳤다. 이 소리를들은 인력거꾼이 한국에서는 여자가 호령조로 이야기하는것이 아니라고 일러주더라고 회상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한뒤의 이야기지만 또한번은 다른 선교사 부부와 넷이서 자동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다가 그만 자동차가 고장나고 말았다. 자동차를 수리하는 동안 동네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서양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구경꾼들의 화제는 이 네명의 남녀가 누가누구와 부부냐는데 집중됐다. 구경꾼들은 늙은 남자와 뚱뚱한 여자가 부부일거라고 입을모았다. 이때 아버지는 한국말을 한히 알아들었으면서도 이를 못들은 척했다. 왜냐하면 어느 남자치고자기가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느 여자치고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때문이다.



◇아버지 元漢慶박사가 한국에서 맨처음 있지는 모르겠으나 비교적 빨리타고 다녔던 자동차모습. 나룻배에싣고 九味浦 해수욕장에 갈때 찍은 것이다.

祖父가 선교사休養地로 개발

"東洋제일의景勝"…아버지 自動車처음타고 다녀